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관련지식에 관한 연구

송병춘^{1*} · 조지현¹ · 이인열¹ · 김미경²

¹건국대학교 생활과학과 · ²우송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 Study on Knowledge on Breast Feeding of College Students by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ByengChun Song^{1*}, Jihyun Cho¹, InYul Lee¹, Mikyung Kim²

¹Department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 Konk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Woosong University

Abstract

The breast feeding habits of 507 college students were evaluated between March 27 to April 26 (2006).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V.12.0.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245 (48.3%) male and 262 (51.7%) female college students that answered 'yes' when asked whether they had been breast feed. A total of 52.7% of the study population were fed with breast milk (most frequent answer), as opposed to 11.0% that were fed with infant formula (least frequent answer) during their infancy. When asked whether they ever got educated on breast feeding, 78.1% of the college student subjects answered 'no'. A total of 95.1% of the female college students replied 'yes' when asked if they intended to breast feed their child. Moreover, 62.2% of the college student subjects indicated that their parents had an influence on their decision to breast feed. A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dicated that female college students had a superior knowledge level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breast feeding over the male subjects ($p < 0.05$). Moreover, a comparison of the different levels of college attained suggest that freshman college students had the highest knowledge level, followed by senior, sophomore and junior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advantage, BF Tabu ($p < 0.05$). Also, students provided with education on breast feeding had a higher knowledge level than college students with no formal education. In summar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knowledge on breast feeding in college students were differ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major and school year, and education on breast feeding in advance was appea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therefore nutritional education course on breast feeding is recommended for the college students.

Key Words : knowledge, breast feeding, general characteristics

1. 서 론

모유는 아기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서 아기에게 가장 적합한 영양공급원이며 모유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역성분도 함유되어 인공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질적으로 우수하다. 또한 모유수유는 모자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주어 아기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산모에게는 산욕기 우울증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산모의 자궁수축을 돕는다. 또 유방암 발생도 낮추어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Worthington-Roberts & William 1989) 자연피임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난소암 발생률도 낮추어 준다(Jelliffe & Jelliffe 1997).

또한 모유의 성분 조성은 초유에서 성숙유에 이르기까지 수유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임으로써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아기의 영양적 요구에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다(Reeder & Martin 1987). 특히 영유아기의 영양상태는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한 정신적, 육체적 성장발육과 건강의 유지,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질병이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Park 등 1996).

그러므로 산모가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것은 아기에게는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선물인 동시에 산모에게는 아기 양육방식에 대한 최초의 선택으로서 자연의 순리이며 모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Toni 1990). 모유수유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본능적인 것이 아니므로(Huggins 1990)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모의 적극적인 의지와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Kim & Choi 2001).

*Corresponding author: ByengChun Song, Konkuk University, 322 Danwol-dong, Chungju Chungbuk 380-701, Korea
Tel: 82-43-840-3583 Fax: 82-43-840-3585 E-mail: bcsong@kku.ac.kr

현재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95%로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하였으나 1970년대 46-70%, 1980년대 36-50%, 1990년대 20-34%, 2000년에는 거의 10%대로 감소하였다.(Lee 등 2003) 그러나 모유수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WHO/UNICEF에서 제시한 성공적인 모유수유 10단계를 준수하며 아기 친근 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2000년 4월에 13개 병원이 지정되었을 뿐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총체적인 캠페인이나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Choi 2003).

Lawrence(1995)에 의하면 산모의 90% 정도가 임신 2기까지 수유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모유수유를 결정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부족, 모유양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 의료인의 무관심 등이며, 모유수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전의 성공적 경험, 정확한 정보,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주변인물의 존재 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 수유부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함께 모유수유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하여 모유수유를 하게 될 여자 대학생들과 또 남편으로서 모유수유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될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사전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대학생들의 모유수유 지식이나 태도에 관한 연구는 여대생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 및 태도(Lee 2003), 모유수유에 대한 여대생의 지식 및 태도(Kim & Choi 2001)가 있었고, 그 외의 연구들은 대부분 임상간호사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미래에 모유수유를 하게 될 여대생과 미래의 배우자의 모유수유에 영향을 주게 될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남녀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1주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지역의 K대학교, 충북 지역의 K대학교와 C대학교 남녀 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6년 3월 27일부터 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525부(94.5%)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07부(92.2%)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연구도구 및 측정문항

1) 일반적 특성 및 모유수유 관련변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전공계열, 학년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모유수유 관련 변수로는 모유수유를 본 경험, 영아기 시절 수유형태, 모유수유 교육경험 등 3문항으로 하여 총 6문항을 이용해 모유수유 지식을 살펴보는데 이용하였다. 모유수유 교육경험은 교양과목 및 관련교과목 수강여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관련변수로는 미래 모유수유 여부와 수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묻는 총 2문항을 포함하였다.

2) 모유수유 지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Williams & Hammer(1995)가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서 Lee 등(1999)이 번역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부영역별로는 '모유수유 생리' 4문항, '모유수유 이점' 3문항, '모유수유 영양' 4문항, '모유수유 금기' 2문항, '모유수유 시도' 2문항, '모유수유 관리' 4문항으로 6개 영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정답은 1점, 모르겠다와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통계패키지 SPSS for Windows ver. 12.0 을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백분율,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모유수유의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 교육경험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t검정(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및 모유수유 관련변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성별, 전공계열, 학년을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507명 가운데 남자 대학생이 48.3%, 여자 대학생이 51.7%로 여자 대학생이 약간 더 많게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가 4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계 20.7%, 인문계 15.2%, 예능계 10.7%, 의학계 6.3%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학년 29.4%, 3학년 21.7%, 1학년 13.6%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245(48.3)
	Female	262(51.7)
Major departments	Cultural science	77(15.2)
	Social science	105(20.7)
	Natural science	239(47.1)
	Medicine	32(6.3)
	Art	54(10.7)
School year	Freshman	69(13.6)
	Sophomore	179(35.3)
	Junior	110(21.7)
	Senior	149(29.4)

2) 모유수유 관련변수

모유수유 관련 변수 중 모유수유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가 72.6%, ‘아니오’가 27.4%로 모유수유를 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조사대상자 본인의 영아기 시절 수유형태를 살펴보면 ‘모유수유’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수유’ 25.8%, ‘인공수유’ 11.0%, ‘모르겠다’ 10.5%순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21.9%, ‘없다’ 78.1%로 모유수유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학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모유수유 관련변수는 미래 모유수유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95%,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5%로 거의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미래 모유수유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친정부모’라고 대답한 비율이 6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편’ 16.0%, ‘친

<Table 2>Breast feeding factors of the subjects N(%)

Factors	Group	N(%)
Experienced observing breast feeding	Yes	368(72.6)
	No	139(27.4)
Type of feeding in infancy	Breast feeding	267(52.7)
	Bottle feeding	56(11.0)
	Mix	131(25.8)
	Don't know	53(10.5)
Experienced education in breast feeding	Yes	111(21.9)
	No	396(78.1)
*Breast feed in the future	Yes	249(95.0)
	No	13(5.0)
*Who affect your breast feeding	Parents	163(62.2)
	Husband	42(16.0)
	Friends	37(14.1)
	Siblings	12(4.6)
	Parents-in-law	8(3.1)

구 및 주변인’ 14.1%, ‘시부모’ 3.1% 순으로 나타나 수유에 영향을 주는 이는 시부모나 친구, 남편보다는 친정부모라고 생각하는 여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1996)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

모유수유 지식정도를 수유생리, 수유이점, 수유영양, 수유금기, 수유시도, 수유관리 지식영역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1) 모유수유 생리지식 영역

모유수유 생리지식에 관한 영역에서는 성별,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대학생(0.38)이 여자 대학생(0.45)보다 생리지식

<Table 3> Knowledge on breast feeding by general characteristics

Factor	Group	Knowledge on breast feeding													
		Physiology		Advantage		Nutrition		BF Tabu		BF Try		Manegent		Total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Gender	Male	0.38		0.69		0.27		0.37		0.16		0.40		0.39	
	Female	0.45		0.80		0.31		0.42		0.21		0.52		0.46	
	t-value	-3.20**		-3.87***		-1.90*		-2.28**		-1.79*		-4.68***		-5.20***	
Major Department	humanities science	0.38	b	0.73		0.24	c	0.38		0.24		0.50	a	0.42	
	Social science	0.37	b	0.75		0.34	ab	0.40		0.17		0.43	ab	0.42	
	Natural science	0.45	a	0.75		0.28	bc	0.42		0.20		0.48	ab	0.44	
	Medicine	0.45	a	0.79		0.39	a	0.34		0.10		0.53	a	0.46	
	Art	0.41	ab	0.72		0.27	bc	0.33		0.15		0.38	b	0.39	
	F- value	2.41*		0.26		3.45**		1.97		1.68		2.38*		1.40	
School year	Freshman	0.46	a	0.84	a	0.33		0.45	a	0.23		0.45	ab	0.46	a
	Sophomore	0.39	b	0.75	bc	0.28		0.41	ab	0.17		0.50	a	0.43	ab
	Junior	0.39	b	0.66	c	0.28		0.37	b	0.21		0.38	b	0.39	b
	Senior	0.45	ab	0.77	ab	0.29		0.36	b	0.17		0.48	a	0.43	ab
	F- value	2.50		4.58**		0.70		3.14*		1.10		3.92**		3.41*	

*p<0.05, **p<0.01, ***p<0.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의학과(0.45)와 자연계(0.45)에서 모유수유 생리지식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능계(0.41), 인문계(0.38), 사회계(0.37)순으로 나타났다($p < 0.05$). 이 결과는 인문계 학생들보다 자연계 학생들의 모유수유 지식평균이 더 높았던 Choi(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양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전공의 특성에 따라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의학과 계열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더 높아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 교육이 더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2) 모유수유 이점지식 영역

모유수유 이점지식에 관한 영역에서는 성별,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대학생(0.69)이 여자 대학생(0.80)보다 모유수유 이점에 관한 지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0.84)이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고 다음이 4학년(0.77), 2학년(0.75)의 순이며 3학년(0.66)이 가장 낮은 지식수준을 나타냈다($p < 0.01$). 그 이유는 설문조사 당시 1학년이 관련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 모유수유 영양지식 영역

모유수유 영양지식에 관한 영역에서는 성별, 전공계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대학생 0.27, 여자 대학생 0.31로 여자 대학생의 지식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의학과(0.39) 학생의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계(0.34), 자연계(0.28), 예능계(0.27)의 순이었으며 인문계(0.24) 학생의 영양 지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모유수유 금기지식 영역

모유수유 금기지식에 관한 영역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대학생 0.37, 여자 대학생 0.42로 여자 대학생이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학년별로는 1학년(0.45)이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2학년(0.41), 3학년(0.37), 4학년(0.36)으로 나타났다($p < 0.05$).

5) 모유수유 시도지식 영역

모유수유 시도지식에 관한 영역에서는 남자 대학생(0.16)의 지식수준이 여자 대학생(0.21)의 지식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6) 모유수유 관리지식 영역

모유수유 관리지식에 관한 영역을 살펴보면 성별, 전공계열,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대학생 0.40, 여자 대학생 0.52로 여자 대학생의 관리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전공계열에서는 의학과(0.53)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인문계(0.50), 자연계(0.48), 사회계(0.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능계(0.38)의 지식수준이 가장 낮았다.($p < 0.05$)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0.50)의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4학년(0.48), 1학년(0.45), 3학년(0.38)의 순이었다($p < 0.01$).

3. 모유수유 교육경험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

모유수유 교육경험에 따른 모유수유 지식정도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유수유 교육의 경험 여부에 따라 모유수유 생리지식 영역, 모유수유 영양지식 영역, 모유수유 시도지식 영역, 모유수유 관리지식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유수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모유수유 생리지식 영역($p < 0.01$), 모유수유 영양지식 영역($p < 0.001$), 모유수유 시도지식 영역($p < 0.05$), 모유수유 관리지식 영역($p < 0.01$)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의 지식수준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지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았던 연구(Kim & Choi 2001)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4> The Difference in Breast feeding Knowledge by education of breast feeding of the Subject

Factor	Group	Knowledge on breast feeding													
		Physiolosy		Advantaye		Nutrition		BF Tabu		BF Try		Manegent		Total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Mean	D
BF education	Yes	0.52		0.73		0.41		0.38		0.22		0.54		0.49	
	No	0.39		0.75		0.26		0.40		0.18		0.44		0.41	
	t- value	5.13**		-0.52		6.22***		-0.48		1.09*		3.29**		4.66**	

* $p < 0.05$, ** $p < 0.01$, *** $p < 0.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 관련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K대학교와 충북의 K대학교, C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27일부터 1개월에 걸쳐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총 507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 12.0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남자 대학생 245명(48.3%), 여자 대학생 262명(51.7%)이고 전공계열은 자연계 47.1%, 사회계 20.7%, 인문계 15.2%, 예능계 10.7%, 의학계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35.3%, 4학년 29.4%, 3학년 21.7%, 1학년 13.6% 순이었다. 모유수유를 본 경험에 대해서는 ‘예’가 72.6%로 나타났으며 영아기 시절 수유형태는 ‘모유수유’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공수유’가 1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는 대답이 78.1%로 나타났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미래 모유수유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95.0%가 ‘예’라고 대답했으며 미래 모유수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친정부모’가 62.2%로 가장 높았으며, ‘시부모’가 3.1%로 가장 낮았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유수유의 지식수준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보다 생리지식영역, 이점지식영역, 영양지식영역, 금기지식영역, 시도지식영역, 관리지식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높았다. 또한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모유수유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상적이며 좋은 영양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미래에 아버지가 될 남학생에게도 배우자에게 모유수유를 권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Choi KS. 2003. A Study on the Future Plans for Infant Feeding Practice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8(2):240-249
 Choi KS. 2004. A Study on experiences and needs for breastfeeding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 Basic Sciences, 4:129-138
 Choi KS, Lee HJ. 2006. A Study on Knowledges and Attitudes about Breast Milk Feeding and Needs for Breast Milk Feeding Educ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1(2):191-204
 Huggins K. 1990. The nursing mother's companion. The Harvard Common Press Boston.
 Hyun TS, Kim KN, Kan NM, Lim EY. 2002. The Economic Benefits of Breastfeeding.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7(6):863-871
 Jelliffe DB, Jelliffe EF. 1997. Breast is best : Modern meaning.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97(17)
 Kim SH, Choi ES. 2001. The knowledge and attitude on breast feed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7(1):93-106
 Lawrence PB. 1995. Best source of nutrition for term and preterm infants. Pediatr Clin North Am, 41:925-941
 Lee EJ. 1996. Comparison of the Infants Feeding by Breastfeeding Education.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3(1):111-125
 Lee HK. 2003. Female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breast feeding. Masters degree thesis. KonKuk University
 Lee YS, Lim HS, Ahn HS, Chang NS. 2003.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Kyomunsa
 Park WH, Youn BB, Chun SJ, Kim H, Kwak IH. 1996. Mode of infant feeding and infectious disease. J Korean Acad Fam Med, 17(7):533-539
 Reeder SJ, Martin LL. 1987. Maternity Nursing. JB Lippincott Philadelphia.
 Toni S. 1990. Bottle or breast, the first big decision. Nursing Times, 86(35):5-63
 Worthington-Roberts BS, William SR. 1989. Nutrition in pregnancy and lactation. Mosby St. louis.

(2008년 1월 29일 접수, 2008년 4월 17일 채택)